

SUMMARY

Intro) 최악의 해운시황에 따른 자산의 저주

- 해운업 시황 침체는 지난 200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
 - 1)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자산가치 하락
 - 2) 보유선박 유지비용 과다로 인한 경쟁력 하락
- 보유선박 유지비용 : 일일 5000달러 / 용선료 : 2000~3000달러
- ⇒ 장기로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라 부담이 가중

Body1) 한진해운의 자구노력

- 1) 2011년부터 약 7000억 원에 달하는 유상증자
- 2) 대한항공이 교환사채의 차액정산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2000억원 지원
- 3) 우량자산인 벌크 전용선사업부를 약 3160억 원에 매각
- 4)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진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던 총 31989만주 의 에스오일 주식을 매각
- 5) 2016년에 평택터미널과 신항만에 대한 지분을 팔고 노선 영업권, 상표권 매각 등으로 2351억원 확보

But 해운불황의 지속으로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한진해운의 자구 노력에는 한계

- 결국 채권단에 'SOS' ⇒ 한진해운은 자구계획을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제출 ⇒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안 외면 ⇒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
- 금융당국과 채권단曰 "개별 기업의 부족자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게 구조조정의 원칙이었다."
- 한진해운 측이 제시한 금액이 4000억 원대로 적었던 것

Body2) 경영능력과 자세의 문제점

-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준비 안 된 오너와 경영진의 비전문성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음
-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다가 2006년 45세의 주부에서 경영책임자가 된 최은영 전 회장
- 전문경영인은 관련성이 떨어지는 금융기관 출신
-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하에서 용선을 대폭 늘린 것도 문제로 지적

Body3) 정부 대응책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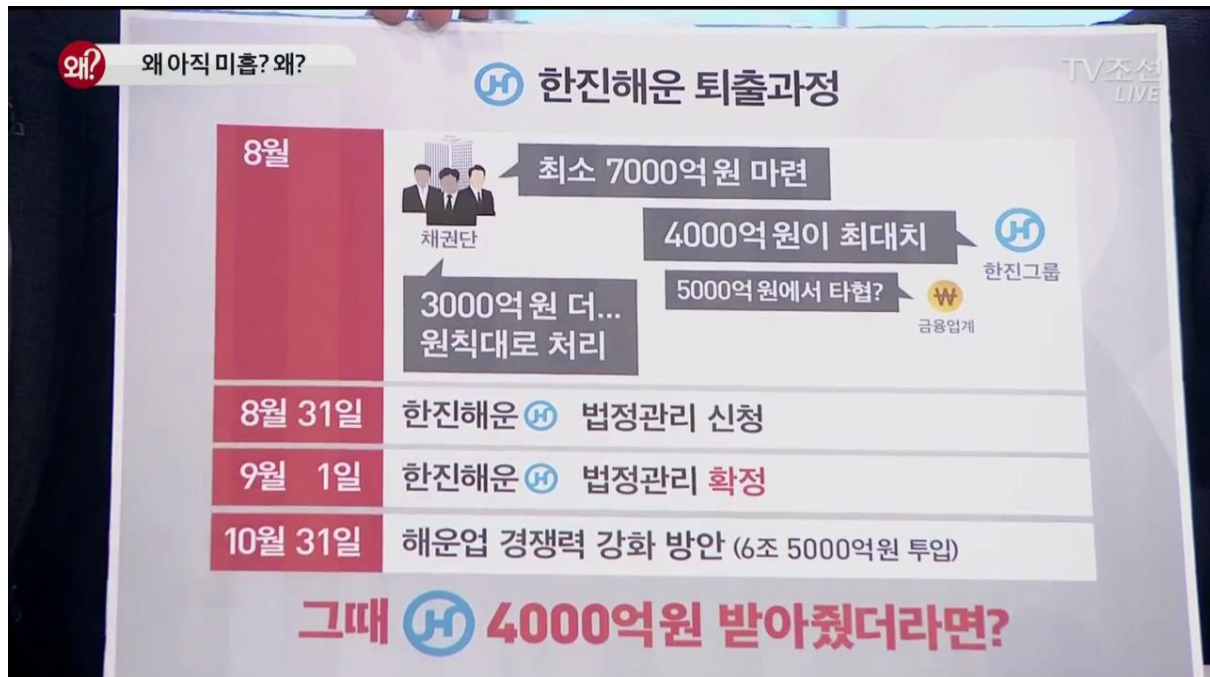
- 2009년부터 계속된 해운산업의 위기에 대한 경고가 지속됐음에도 우리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
- P-CBO, 선박펀드, 한국해양보증도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도움이 거의 되지 못함
- 정부는 한진해운을 계속 살려둘 경우 국민경제가 얻게 되는 편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간과, 동북아물류중심 정책을 실시해온 과거 20여 년에 걸친 정책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음
- 사주가 있는 민간회사에 정부가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에만 매몰됨

Outro) 이미 무너진 외양간(해운산업)

정부는 국고로 지원하더라도 한진해운을 살렸어야 했다.

천문학적인 네트워크 구축 발생 비용, 연관 산업 위축 등 막대한 부작용과 외국 해운선사만 남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합리적 선택 기회의 상실, 2만 5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 국가 위기 시에 전략물자 수송에 필요한 국가 필수선대의 상실...

REFERENCE



'한진해운 법정관리' 최순실 연루 집중질타

채권단이 한진해운 자금 지원을 거부해 결국 법정관리에 이르게 된 데에 최순실의 영향력이 일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기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이하 K뱅크) 예비인가에는 차은택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부인했다.

정무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KDB산업은행 혁신안 및 조선 해운 구조조정 관련 관계기관으로부터 현 안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및 은행법 개정안 등 총 69개 법안에 대한 심의도 안건으로 올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진해운 법정관리 및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최순실 연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먼저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이 지난해 초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만나 2차례에 걸쳐 거액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단 지원 거부가 최씨의 요구를 거부해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은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은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한진해운은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KT가 대주주로 참여한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지난해 말 예비인가를 받는 데에 차은택의 입김이 작용했

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이날 회의에서 "K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 차은택이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인터넷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외부심사위원이 만든 안을 금융위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제가 직접 인가 과정을 주관했는데, 결코 인가 과정에서 (최순실 개입과 같은) 외부 요인은 없었다"고 답했다.

디지털 타임즈 2016-11-16

조양호 찍어내기, 평창 이권 때문이었나

[앵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조양호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사를 최순실씨 측과 관련이 있는 회사에 맡기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던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3일,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한진해운의 경영 상 문제 때문에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각종 이권에 눈독을 들였던 최순실씨 측과의 마찰 때문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

"조양호 위원장이 그런 거를 거부하다 잘린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 스위스... 그거 말도 안된다, 그래서 대림 들어왔고. 하라고 그랬는데 조양호 위원장이 공개 입찰해가지고서, 안되니까. 자기 말 안들으니까."

언급된 스위스의 건설 회사는 누슬리라는 회사로, 최순실씨가 소유한 더블루케이와 협약을 맺어 1200억 원 짜리 개폐회식 공사를 노렸습니다.

그 전부터 각종 용역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최순실씨 측의 개폐회식 공사 수주까지 막은 조 위원장.

결국 지난 5월 2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습니다.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

"(일 하다가 부딪히는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큰 일 하면 많이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더블루케이는 올 해 말 1500억원 규모의 메인 스타디움 시설 공사 사업 수주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11.02

WORD

해운업

: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항하거나 선박을 대도하거나 해운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용선료

: 해운사가 배의 전부나 일부를 빌리고 이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배 주인(선주)에게 지불하는 돈.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사업인 해운업은 경기에 매우 민감하다. 국제경기가 호황일 경우 국가간의 물자이동이 많아 지면서 그 혜택을 입지만 그 반대일 경우는 큰 타격을 받는다.

물동량

: 물자가 이동하는 양.

유상증자

: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뉜다.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교환사채

: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교환해 주기로 하고 발행하는 회사채를 말한다. 교환사채를 사간 투자자가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하게 되면, 발생사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주식)을 넘겨 주어야 하므로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회사가 부채로 안고 있던 사채(교환사채)가 주식을 넘겨주면서 사라지는 것이므로 회사의 부채도 동시에 감소하게 된다. 교환사채의 장점은 일반사채와 달리, 주식과의 교환권을 부여함으로써 장래 주식가격의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의 기대와 그 대가로써 사채의 이자율을 다소 낮게 책정하여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경감하고 동시에 사채 발행으로 자금의 조달을 촉진할 수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P-CBO

: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을 말하는데 이 중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Primary CBO(발행시장 CBO)라고 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 또는 신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되었다.

선박펀드

: 새 배를 만들거나 중고선을 사들여서 해운회사(용선사)에 빌려준 뒤 임대료(대선료)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주는 상품이다.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가 만기 때 매각을 통한 원금회수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고정배당률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선박가격이 올라도 매각차익을 누릴 수 없는 게 단점이다.

한국해양보증보험

: 한국해양보증보험(韓國海洋保證保險, Korea Maritime Guarantee Insurance Co.,Ltd.)은 정부가 주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의 해운보증기구이다.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50%씩 출자하여

2014년 12월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위치하고 있다. 2015년 8월 26일에 본 영업을 시작하였다.

ISSUE

- 1) 한진해운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비전문인인 최은영 전 회장이 경영책임자가 되어, 경영을 했다는 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영역에 들어서서 한다면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 사익을 추구하고 공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한진해운 사례 말고 또 있을까요? 확장하여, 기업 외에 비전문가가 일을 그르친 경우에 대해, 자신이나 주변의 사례도 이야기해봅시다.
- 2) 한진해운 사태에 최순실 의혹이 있습니다. k스포츠재단에 조양호 회장이 10억출현을 거부했으며, 최순실의 더 블루케이가 평창동계올림픽 3000억짜리 공사를 조양호 회장의 반대로 못 따게 되면서, 최순실의 미움을 사, 법정관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조양호 회장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내려봅시다. 또한, 자신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봅시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한진해운 법정관리...최순실 사태 피해자인가? 2016-11-2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경질된 것과 한진해운이 공중분해 된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의 명운이 걸린 시기에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문제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계완 / 시사평론가 : 작가가 드라마를 쓰더라도 저렇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나온 이야기만 보면 최순실 씨가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까지 날렸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추천한 회사에 공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존 업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어서 예산 낭비도 있고 설계 기준에도 맞지 않는데 주라고 해서 그걸 하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잘랐다는 건데요.

대통령이라도 저렇게 할 수 없죠. 대통령 위에 최순실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에 조직적으로 청와대 수석실까지 움직이면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한진해운으로 보면 더 복잡합니다.

그때 찍힌 것 때문에 정말로 한진해운이 보따리 싸고 사업을 접는 것에 직접 개입했다, 그래서 자금 지원까지 막았다면 이것은 건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